

회개해야 정상인이다

성경말씀: 고후7:1-12

아이들이 크면 부모에게 선물을 한다. 남편과 아내가 선물을 한다. 그런데 선물 받는 당사자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효과가 없다. 우리도 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그러려면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1. 믿음(히11:6), 2. 회개(눅15: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수태되면서부터 죄인이다. 죄투성이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죄를 짓는다. 부정할 수 없다.

죄 문제 해결: 구원, 이를 위한 기초 회개, 구원 이후 성화: 회개 필수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 세계 10대 도시, 파당, 음행, 법정 고소, 결혼과 이혼, 우상 제물 먹는 것, 주의 만찬 무시, 무질서한 방언, 부활 부인 등 각종 위험한 죄들이 내재한 교회

고린도전서를 보냈으나 말을 듣지 않음, 거짓말쟁이, 바울의 사도권 부인, 바울이 구제 헌물을 중간에서 가로챤다는 험담(고후11), 속임수로 이득을 취한다고 함(고후12)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말

〈회개해야 정상인이다〉

1절: 그러므로는 6:16-17,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후5:10-11).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시29:2), 장성한 분량

육과 영의 더러운 것: 몸으로 행하는 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행하는 죄(이단, WCC 등)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막7:18-23)

2-4절: 고린도 성도들에 반해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다님

5절: 지금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있음, 많은 고통을 당하며 복음 선포

6-7절: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드디어 그가 다시 와서 좋은 보고를 하여 그를 위로함

8절: 바울의 고린도전서로 인한 후회, 그들의 근심, 지금은 기뻐함

9-10절: 근심하여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뜻을 굽히고 180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

그런데 회개에도 두 종류가 있다: (1) 자기 마음대로 후회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 일시적 효과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 세상의 근심(10절), 사망을 이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음, 대표 사례 가룟 유다

(2)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슬퍼하며 근심할 때에 바른 회개가 이루어진다. 대표 사례 베드로

(3)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서로 상처를 받지 않는다.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4)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이룬다. 두 가지 측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영원한 구원,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로부터 구원도 의미함.

11절: 그 결과는 눈에 드러나게 확연히 나타난다.

12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서로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은 용서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성도들의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번 주 인터넷 사건 소개

누가복음 18장 9-14절(세리와 바리새인)

마태복음 21:29-32절(세리와 창녀들과 바리새인들)

“주홍 글씨” 요약(박승용)

나다니엘 호손(1804-1864)의 《주홍 글씨》는 1640년대의 미국 보스턴(Boston)을 배경으로 하는 죄와 벌에 관한 이야기로서 유럽 최고 수준의 문학 작품과 견줄 수 있는 첫 번째의 미국 소설이었다. 호손은 뉴잉글랜드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스턴 지역 향토연대기와 법정 계간지를 애독하였다.

《주홍 글씨》는 이런 사료에 나타나는 간통사건의 재판과 형벌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호손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사실과 허구”의 결합체이다. 특히 사랑하지 않는 늙은 남편과 결혼하고 간통죄를 범한 헤스터 크래포드(Hester Craford)라는 젊은 여인의 실제 재판에는 엄격한 청교도였던 호손의 조상들도 관여했었다. “청교도가 누구인가?, 청교도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소설을 바르게 볼 수 있다.

왜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가 아니다. 여기에 바로 세리와 창녀 같은 ‘회개하는 죄인’과 바리새인들로 비교된 청교도들이 나온다.

먼저 그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신정국가,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됨, 이것은 유일하게 구약의 이스라엘에만 적용됨(안식일, 십일조), 예수님은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마22:15-22, 특히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신약시대에서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었다. 국가가 믿음을 부인하게 하지 않는 한 성도들은 국가에 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베드로, 바울 등도 모두 국가의 재판을 받고 죽었다.

AD 313년의 밀라노 칙령, 교회가 배도의 길로 들어서면서 AD 600년경부터 유럽 대륙 전체는 천주교라는 국가종교를 믿어야만 했다. 유아세례, 라틴어 미사, 성경 금서, 성경 신자들과 유대인 학살, 아니면 이단으로 처형되거나 유랑 생활, 중세 암흑기 1000년

1517년의 종교 개혁, 루터교

1534년 영국(잉글랜드)의 수장령, 헨리8세의 이혼 문제, 성공회, 영국의 국가 종교

1541년부터 칼빈의 제네바 통치, 국가 교회, 완전한 신정 정치

요한 칼빈: 탁월한 설교자요 따뜻한 목회자, 치열한 진리의 변증과 사상가로서의 신학자, 선교운동가로서, 교회정치를 통한 신정정치의 가능성과 본을 보여준 교회 정치가, 다양한 모습, ‘개신교의 교황’ 칼빈이 불과 1만 3천명에 불과한 제네바 시를 4년 동안 통치하며 그 자신은 물론 그가 장악한 종교국을 통해 죽인 공식적인 인원만도 58명에 이르며 추방한 인원은 76명에 달했다. 이중 35명은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으로 죽었고, 10명은 목을 잘라 처형했으며, 13명은 목매달아 죽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고문과 가혹한 만행들이 종교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고 은폐되었다. 이 모두가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칼빈이 정통으로 숭상하는 칼빈주의라는 무기로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때로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자신의 독선적인 지배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반대당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거침없이 제거하였다. 단 하룻밤 만에 제네바에는 칼빈당 외에는 어떠한 당파도 남지 않았다. 영혼의 자유 말살 도구가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5대 강령이다.

1560년경 스코틀랜드 장로교, 국가 교회

이러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비국교도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대표적인 것이 청교도

국가 교회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신대륙으로 이주, 1620년 11월 11일, 칼빈주의 제네바 성경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신대륙에서 칼빈주의 신정정치 국가교회를 실현하려고 함.

구약시대처럼 여자와 아이들은 대접을 받지 못함, 간음 사건 같은 경우 죽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잔인한 방법을 쓰게 됨,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청교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함. 한 마디로 무서운 독재 체제

청교도들은 기독교적 이상주의자들이었다. 정치적 속박과 종교적 탄압을 피해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구대륙(유럽)의 타락과 죄악으로 오염이 되지 않은 원초적 순수 세계인 새로운 에덴을 건설하려고 했다. 에덴이라는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율을 철저히 따르고 하나님의

계율에 의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신정(神政)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계율을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인간은 신정(신정)을 실현해 행복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결함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율을 위반하는 죄인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치녀지에 도덕적 순수와 행복의 유토피아를 세우면서도 감옥과 묘지를 위한 땅”도 할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사회에는 성도들의 교회와 죄인의 감옥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감옥이 없으면 지상낙원의 건설이나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토피아에도 감옥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생존조건이다.

엄격한 청교도 교육을 받은 호손은 《주홍 글씨》에서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이상에 지나치게 몰입해 인간성을 억압하게 되는 청교도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인간 정열의 제한 없는 방출이 초래하는 혼돈과 무질서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는 정열을 예찬하면서도 계율의 필요성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계율 즉 법이 없으면 인간 공동체의 존속은 물론 문명의 생성과 발달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호손은 정열과 계율 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죄와 벌과 회개의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범이 종교적 교리나 정치적 이념에 의해 절대화되는 순간 규범은 개인의 자유와 인간을 말살하는 괴물로 변형될 수도 있지만 정열의 무제한적 방출도 위험하며 성공적인 사랑은 법과 도덕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홍글씨의 세 주인공: 헤스터, 딘즈데일 목사, 헤스터의 남편 칠링워스

죄인에서 거룩한 여인으로의 길로

간통죄로 복역 중이던 헤스터 프린(Hester Prynne)은 군중들 앞에서 가슴에 A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繡(수)를 달고 3시간 “전시된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그 붉은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A는 간통을 의미하는 ‘adultery’의 머리글자이다. 그러나 정열이 삶의 기본 원칙인 헤스터는 주홍글씨 A를 죄의 부끄러운 징표가 아니고 사랑의 자랑스러운 깃발로 간주한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주홍글씨는 군중들은 물론 상석에 앉아 있는 주지사, 목사 등 식민지 고위인사들의 눈길을 마법처럼 사로잡고 있었다. 사랑의 소산인 세 달짜리 아기(필)를 안고 군중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헤스터는 광휘에 빛나는 여신의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헤스터는 존경받는 목사 딘즈데일(Diemsdale)과의 사회적으로 금지된 사랑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지만 청교도 법정이 내린 형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징벌의 세월이 흘러 갈 동안 헤스터는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살았다. 그녀는 사람들과 결코 다투지 않았다. 자신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과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는 봉사와 희생의 미덕을 쌓으며 도덕적 순수의 길을 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호의적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그녀를 ‘구휼의 자매’(Sister of Mercy)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가슴에 있는 주홍 글씨를 수치와 죄악의 징표가 아니고 여성의 힘을 상징하는 ‘Able’의 머리글자 ‘A’라고 말하였다. 또한 주홍글씨 A는 수녀의 가슴에 달고 있는 십자가처럼 모든 재앙을 물리치는 성스러운 힘이 있다고도 하였다. 청교도의 엄혹한 법이 자신의 소중한 사랑을 파멸시켰지만 그 법이 내리는 형벌의 적극적인 수용과 고통을 통해서 헤스터의 영혼은 천사처럼 정화되어 간 것이다.

청교도 목사 딘즈데일의 다행스런 전략

딘즈데일은 헤스터와 잠자리를 했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딘즈데일은 죄책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감정이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식민지 최고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너무 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죄의식이 심해집니다. 고백하고 싶어서 교회 집회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더 좋아하게 될 뿐입니다. 혼자 있을 때면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굶어서, 부모님과 필, 헤스터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어느 늦은 밤, 밖으로 나가 형들이 있는 연단에 서서 새된 비명을 지릅니다. 딘즈데일은 마음속에 숨겨둔 죄로 인해, 그 죄를 공개적으로 참회하지 못하는 비겁함 때문에, 그리고 교묘하게 그의 양심을 찌르면서 그의 죄의식을 증폭시키는 칠링워스의 간악한 계략으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져 갔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고통의

불길로 인해 정련되고 정화되어 갔었다.

슬프고 고뇌에 찬 딘즈데일의 설교는 대단히 감동적이고 가슴을 적시는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 딘즈데일은 가장 미천한 사람들에게도 깊은 이해와 따뜻한 동정을 나타내었고, 고통 받는 죄인들에게도 형제적 유대감을 가졌다.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에 대한 변민으로 허약해진 딘즈데일이 그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산 채로 승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만큼 그를 거룩한 존재로 우러러보게 되었다.

헤스터의 남편은 악한 자

헤스터의 남편인 의사 칠링워스는 침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결코 순수하고 의롭지는 않았다. 그는 간부의 탐색과 응징에 편집광적으로 집착하였다. 그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딘즈데일 목사가 헤스터의 연인이라는 심증을 가지게 된다. 칠링워스는 딘즈데일의 주치의가 되어 치료를 빙자해 딘즈데일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의 비밀을 면밀하게 캐어 나갔다. 어느 날 병약해진 딘즈데일 목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칠링워스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옷을 제쳤다. 그리고 목사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주홍글씨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그의 얼굴은 광폭한 환희로 가득하게 된다. 나는 의인이다(바리새인). 그들의 결말: 딘즈데일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큰 죄의식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됨. 결국 마지막으로 큰 설교가 될 선거일 설교 내용을 작성합니다. 새 주지사가 취임선서하고 딘즈데일이 설교를 해야 하는 날 공휴일이어서 식민지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딘즈데일과 식민지 공무원들이 모두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헤스터는 밖에서 설교를 들으며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곳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전 어느때보다 심하게 주홍글씨를 쳐다보고 있어서 불편합니다. 설교는 엄청난 히트작이었습니다. 뉴잉글랜드에서 지금까지 한 설교 중 가장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딘즈데일이 밖으로 나와서 헤스터와 펄 손을 잡고 형틀이 있는 연단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칠링워드가 가로막으려지만 실패합니다. 딘즈데일은 자기가 7년 전에 이 두 사람과 이 자리에 섰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셔츠를 벌려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를 보여줍니다.

딘즈데일과 헤스터는 죄인의 경험을 통해 죄를 짓는 인간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동정하며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는 전략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고 인간으로서 가능한 선까지 승리한 인간이 된다(시편 51편의 다윗).

《주홍글씨》에서 호숫은 죄를 짓고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헤스터와 딘즈데일은 죄를 짓고 형벌을 달갑게 받아들이면서 각각 성도로서의 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죄를 짓지도 않고 형벌의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다면 갑남을녀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죄와 형벌이라는 정화의 불길 속에서 이들의 영혼은 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정상인과 비정상인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죄의식이 있다. 어린아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얼굴이 빨갛도록 부끄러워한다. 반대로 비정상인은 죄를 숭배하고 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죄를 짓고도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치고 있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마귀의 제자들이다.

정상적인 인간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비정상인은 죄를 자랑으로 생각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헤스터나 딘즈데일처럼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 값을 당연한 듯이 치르며 재생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비정상인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갔다 온 것을 훈장이나 받은 것처럼 자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상인은 죄인이라도 헤스터나 딘즈데일처럼 형벌의 고난을 통해 성도의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비정상인은 성녀 성자라도 공산주의 독충에 물리면 예외 없이 살인을 하고도 미소를 짓는 악마로 전략하게 되기 쉽다. 20세기 최악의 살인마 3인—히틀러, 스탈린, 모택동—중에 2명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

침례성도와 영혼의 자유

이러한 청교도 제도의 신정정치에 반대를 한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침례성도들, 영혼의 자유: 유아세례 No, 재침례, 신자들의 회원, 국가와 교회 분리, 제네바 성경 철폐, 킹제임스 성경 또 다시 국가 교회: 천주교,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등, 침례교 선조들의 반대와 하나님의 섭리

1787년 9월 17일 미국 헌법 제정: 국가와 교회의 완전 분리, 양심의 자유, 인류 탄생 이후 약 5,80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최고의 헌법이 탄생하여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지난 2000년간의 성경 신자들의 고통과 박해, 미국 침례성도들의 부르짖음
천주교 정의 사제단: 국가와 종교의 분리 무시, 영혼의 자유 무시

결론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웃에게 잘못을 범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영혼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요청이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누가복음 13:1-5

그리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유산(영혼의 자유)을 지켜야 한다. 선조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기억하면서.